

‘신인 드래프트’서 드러난 대학야구의 추락



조범현의 야구학

올 드래프트 대졸 207명 중 19명 지명 대학야구 시스템 부실...고졸들 선호 대학이 연결고리 돼야 프로의 질 향상

2018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된 '미래의 별'들은 모두 110명이다. 구단 연고 1차지명을 통해 10명, 2차지명을 통해 100명이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드래프트에 참가한 964명 중 11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니 약 11%의 취업률을 기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110명 가운데서도 특히나 더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이들이 있다. 바로 대졸 드래프트 참가자들이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는 총 207명의 대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 중 프로무대에 입문하게 된 선수들은 단 19명(상승 1차지명 최재홍 포함)이다. 취업률은 전체보다 낮은 약 8%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졸 지원 기피 현상이 올해도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프로선수를 꿈꾸는 아마추어 꿈나무들에게 대학은 이미 차선택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일부 고졸선수들은 대학 진학까지 아예 포기한 채 '고졸 신인선수'로 프로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대학야구의 추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야구 명문의 길을 닦았던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4년이라는 시간은 왜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부담의 시간'이 된 것일까. 이번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드러난 대졸 자원들의 현실에 대해 야구기자 2년 차 장은상 기자가 묻고, 스포츠동아 해설위원인 조범현 전 감독이 답했다.



지난 11일 서울 웨스튼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참가 선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 구단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각 구단의 고졸선수 선호 현상은 또 한번 반복됐는데,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대학야구 출신들이 보다 많이 프로 무대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Q : 2018 신인드래프트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미래의 한국야구를 책임질 자원들이 각 구단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A : 올해도 투수강세는 계속된 모습이에요. 전체 지명자 중 투수가 무려 60명이 넘었거든요. 역시 '야구는 투수놀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

Q : 대졸 자원들의 프로 입문은 올해도 쉽지 않았습니. A : 구단은 선수생명을 고려해 한살이라도 더 어린 고졸 자원을 뽑고 싶어 하죠. 또 우리나라 특성상 군 제복까지 생각하면 대졸 자원들이 실무대는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런 야구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대졸 선수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Q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A : 대학에 진학하는 선수들도 최종 목표는 프로 구단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처 고졸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차선으로 가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4년의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 시간에 좋은 지도를 받고, 경기 경험

을 충분히 쌓으면 이후 프로무대에서도 요긴하게 쓰이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고졸 선수들이 당장 프로무대에 가서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나오냐. 그런 선수는 정말 극소수죠. 적어도 4~5년은 지도를 받아야 1군 전력에 될 수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프로에 있느냐 대학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면에서 대학이 프로를 쫓아가지 못하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Q :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선수들이 오로지 야구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 물론이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의 본분은 지켜야죠. 그런 의지도 없이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어쩌면 프로 가서도 성공

하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공부만큼 야구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선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선수들만 혼란스러울 뿐이죠. 지금 대학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훈련, 주말에는 리그 경기 참가. 단순히 대학 선수들에게 '대학에 왔으니 공부를 해야지'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준선을 명확히 만들어야죠. 학업과 야구를 병행하는 스케줄 속에서 제도적인 허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대학에 진학한 뒤 야구를 그만두는 선수들까지 속출하고 있어요. 꿈을 향해 길을 열어줘야 할 학문의 요람이 어쩌다 꿈을 접게 만드는 곳이 된 건지 참 답답합니다.

Q :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학야구가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까요. A : 대학을 프로구단과 고등학교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해요. 더 이상 지명을 받지 못한 고졸 선수들이 '일단 대학이나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선수들의 역량을 충분히 더 키워줄 수 있는 배움의 요람이 되어야죠. 프로야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첫 기회는 아마야구에 있습니다. 대학 4년만 잘 활용해도 프로 앞 순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대학야구, 더 나아가 한국프로야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긴급 진단해야 합니다. 영근 실태를 한번에 풀기는 쉽지 않죠.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처와 대학이 현장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최리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100순위 권민석 “마지막에 불린 내 이름 감개무량”

고교시절 유격수로 뛴 강건 내야수 “오지환 톨모델...수비 앞세워 생존” '2018 KBO 신인드래프트' 9라운드까지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하위 라운드에는 지명받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점점 사라졌다. '저의 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요기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드래프트의 최종 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두산이 "강릉고 내야수 권민석"을 외쳤다. 10라운드 전체 100순위였다.

사실 권민석은 드래프트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기자는 드래프트가 끝나기 무섭게 권민석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두산 관계자도 "권민석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권민석은 "기대는 했지만, 후시나 '지명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더라. 확신이 서지 않아 행사장에도 못 갔다"며 수줍게 웃었다.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권민석은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며 드래프트 결과를 지켜봤다. 노트북을 통해 KBO의 실시간 중계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100번째 지명권을 보유한 두산 스

카우팀이 그가 재차 중인 '강릉고'를 외치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그는 "정말 기분이 좋다. 이름이 불린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제는 어떻게 프로 무대에 적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친구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부모님께서는 많이 축하해주셨다. '이번 주는 즐기고 다음 주부터는 프로무대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권민석은 184cm·76kg의 신체조건을 지닌, 강건을 자랑하는 내야수다. 고교 시절에는 팀의 주전 유격수였다. 프로 무대에서도 강점인 수비

를 앞세워 살아남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그는 "볼 모델은 오지환(LG) 선배다. 어깨가 굉장히 강하고, 플레이 하나하나가 멋지다. 나는 깊숙한 땅볼 타구를 잡아서 타자를 아웃시킬 때 가장 짜릿함을 느낀다. 두산도 수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팀이 단단하다고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인드래프트 지명 순위는 크게 중요치 않다. 전체 1순위와 100순위 모두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나간게까지 함께 뛰 김시현(삼성) 선배 등을 보며 꼭 프로에서 살아남겠다는 꿈이 생겼다"며 "지명 순위에 대해서 전혀 아슬지 않다. 어떻게든 내 강점을 어필하겠다. 언제나 그라운드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Table with columns for '경기 결과' (Game Results) and '프로야구 기록표' (Professional Baseball Record Sheet) for KIA-Lotte and LG-Kt. Includes statistics like runs, hits, errors, and player names.

Table with columns for 'SK-두산' (SK-Doosan) and '아마추어 경기결과' (Amateur Game Results). Includes statistics for SK and Doosan, and results for various amateur leagues.

Table with columns for '2017 천안·넵스컵 여자부 조별리그 경기결과' (2017 Cheonan-Neps Cup Women's League Results) and '경기예고' (Game Preview). Lists teams like Doosan, Lotte, SK, and KIA with their respective schedules.

Table with columns for '주말 프로축구' (Weekend Professional Soccer) and '주말 프로배구' (Weekend Professional Volleyball). Lists matches between teams like Gwangju, Suwon, Seoul, and Ulsan.